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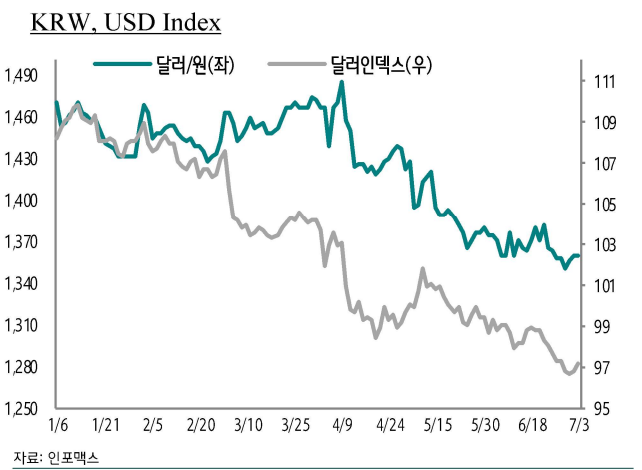
7월 4일

[USD/KRW]

USD/KRW 예상 : 1357~1367원
NDF 증가 : 1361.20 (Swap point : -2.35, 1363.55원)

- (금일 전망)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 고용 호조에 따른 글로벌달러 강세 반영하여 상승 예상. 간밤 견고한 미 6월 비농업 고용 및 실업을 확인되자 금리인하 기대 후퇴에 야간 증가는 1365.5원까지 상승, 역외 달러원 1361.2원 마감. 이를 반영하여 금일 서울환시 달러원 1360원 초중반대 개장 후 60원대 안착 시도할 듯. 다만 대기중인 이월 네고물량이 상단 제한할 요인. 금일 미국 휴장 및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앞둔 경계감에 제한적인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.
- (전일 동향) 전일 달러원 환율은 미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상승. 서울장 1355원 하락 출발 후 장 초반 하방 압력 받기도 하였으나 아시아장에서 달러 강세 전환하며 강보합세. 국내증시 외인 유입에 상단 제한되며 1359.4원 정규장 마감.

달러/원 환율 상승 요인	달러/원 환율 하락 요인
• 미 고용 호조, 강달러 • 금리인하 기대 후퇴	• 고점 인식 매도 •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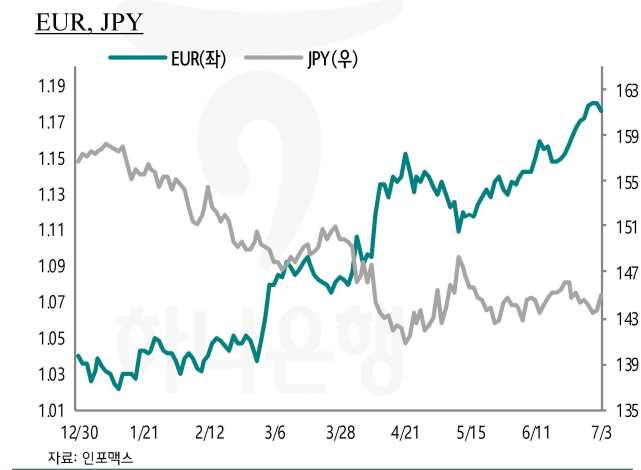


[Global Market]

EUR/USD 예상 : 1.1710~1.1810
USD/JPY 예상 : 144.40~145.40

- (USD Index) 글로벌달러는 미국의 6월 비농업부문 고용 호조 및 실업을 하락에 7월 금리인하 기대 후퇴하며 강세. 달러인덱스는 97선을 회복하며 97.116 기록.
- (EUR) 간밤 유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 있었으나 지지부진한 진전에 달러 대비 약세. 유로달러 환율은 미국의 견고한 고용 지표 확인 후 글로벌달러 강세 반영하여 1.1718달러까지 저점을 낮춘 후 낙폭 일부 되돌리며 1.1757달러 마감.
- (JPY) 엔화 역시 미국의 깜짝 고용 호조로 인한 달러 강세 흐름에 약세. 달러엔 환율은 급등세에 145엔 상향 돌파하기도 하였으나 상승폭 일부 반납 후 144.93엔으로 뉴욕장 마감.

글로벌 통화 동향		
구분	증가(전일비)	재정환율(KRW)
USD Index	97.116 (+0.328)	
EUR/USD	1.1757 (-0.0040)	1598.23 (-4.69)
USD/JPY	144.93 (+1.25)	937.99 (-7.69)
USD/CNH	7.1699 (+0.0085)	189.59 (-0.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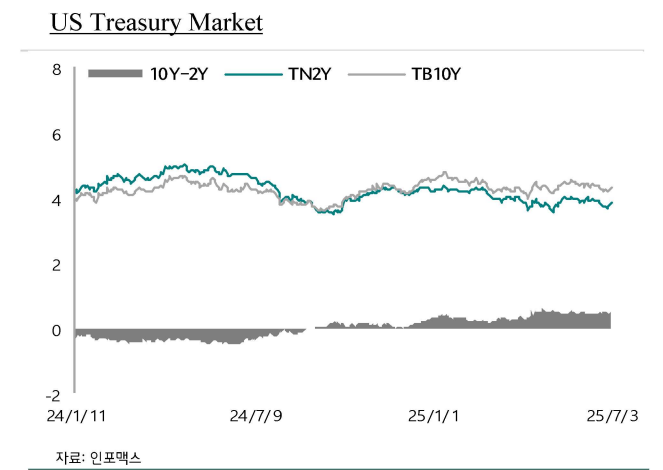


[Macro Analysis]

미국채 장단기 Spread(10Y-2Y) : +46.00bp (전일대비 -3.30)

-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6월 고용지표의 예상 밖 호조에 영향 받는 모습.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4만 7천명 증가하며 지난 5월 대비 상승, 실업을 또한 예상치 대비 낮은 4.1%로 하락하며 전일 ADP 민간 고용지표 부진 우려 해소. 견조한 고용지표에 경기 둔화 우려 완화되며 뉴욕 3대 증시는 연이은 강세,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.77% 오른 44,828.53에 S&P500은 0.83% 상승한 6,279.35, 나스닥은 1.02% 뛴 20,601.10에 마감. 깜짝 고용 호조에 이달 금리인하 기대감 빠르게 후퇴하며 미 국채수익률은 상승 마감. 미 노동부 고용보고서 및 실업을 발표 직후 단기물 위주 급등, 2년물은 장중 3.90%을 상회하기도.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 따른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 반영하며 하락 마감.

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			
시간	내용	예상	이전
15:00	독일 5월 공장주문(MoM)	0.4%	0.6%



깜짝
美
고용호조에
달러원
상승
예상